



의안번호	제 2010 - 1 호
의 결 연 월 일	2010. 2. 8. (제23차 회의)

보  
고  
안  
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목 차

I. 1팀 제27차 회의 .....	1
1. 일시 · 장소 .....	1
2. 참석자 .....	1
3. 주요 안건 .....	1
4. 회의 요지 .....	1
가.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1
나. 2010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	5
II. 제22차 전체 회의 .....	6
1. 일시 · 장소 .....	6
2. 참석자 .....	6
3. 주요 안건 .....	6
4. 회의 요지 .....	6
가.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6
나. 2010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	16
III. 향후 일정 .....	19
별첨    성범죄 양형기준(참고자료)	
서봉규, “전문위원단 회의자료”	
윤정근, “전문위원 2010년도 연구과제(안)”	
이주형, “2010년 전문위원 연구계획 방안”	

---



# I. 1팀 제27차 회의

##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0. 1. 25.(월) 16:40 ~ 18:30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 2. 참석자(6명)

- 김용철, 김현석, 서봉규, 이상원, 조은경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2010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 4. 회의 요지

### 가.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1) 주취 상태의 가중사유 반영

- 최근 음주로 인한 성범죄가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음주한 경우에는 심신미약 여부와 관계 없이 일반가중인자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타당하고, 일반인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형량 구간의 급격한 변동이 없으므로 실무상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봉규, 김용철), 심리학적 관점에서 주취 상태로 인

하여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음주한 경우에는 비난할 동기가 증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중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조은경) 등이 제시됨

- 범행시를 기준으로 책임능력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범행 당시에는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견하고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바, 다만 그러한 경우를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더욱 가중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상원)이 제시됨
- 입법례 가운데, 프랑스와 같이 폭행, 강간 등 개별범죄에 있어서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을 예외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 아래에서도 과연 음주 당시의 사정에 기초하여 형량을 가중하는 인자로까지 취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김현석)이 제시됨

## (2) 특별양형인자 조정

### (가)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적 범행

-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적 범행’은 상습성이라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다른 양형인자가 없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더라도 하한이 상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서봉규)이 제시됨

- 원래 상습범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상습범이라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는 아동 성범죄에 위와 같은 가중인자도 반영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도 적용하게 되면 다른 상습 범죄와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김현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형인자 추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김용철, 이상원) 등이 제시됨
- 오히려 일반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를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조은경)이 제시됨

#### (나) 약취·유인·감금의 수반

- ‘약취·유인·감금이 수반된 경우’에도 범행의 수법이 결코 좋지 않으므로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여 형량 하한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봉규)이 제시됨
- 약취, 유인, 감금의 범행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이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김용철, 이상원), 자칫 해석 범위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약취·유인 등이 전제되는 것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인자로 반영한다면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인자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김현석) 등이 제시됨

#### (다) ‘극히 중한 상해’ 관련 인자

- 상해와 관련하여, ‘조두순 사건’과 같이 상해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에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 양형기준의 ‘중한 상해’만으로는 이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중한 상해’ 인자와는 별도로 ‘영구적 장애나 생명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봉규)이 제시됨

- 아동 성범죄에 있어서는 정신적 피해가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육체적 상해의 측면이 강조되는 기존의 ‘중한 상해’와 달리 정신적 상해의 측면을 반영하는 양형인자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조은경)이 제시됨
- 기존에 ‘중한 상해’가 특별가중인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해에 초점을 둔 특별가중인자를 추가하게 되면 양형인자의 중복 평가가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의 결과 즉, 아동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사정을 별도의 인자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김현석), 정신적 상해의 측면을 양형인자로 반영할 경우 대부분의 성범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정신적 상해 이외의 제한적인 징표를 갖춘 양형인자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김용철), 기존의 ‘경미한 상해’, ‘중한 상해’는 기본적으로 겹으로 드러나는 병리학적 측면에 주안을 두고 있으므로, 극히 중한 유형의 성범죄를 포섭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가혹한 피해 결과를 야기한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상원) 등이 제시됨

#### (라) 기존의 ‘중한 상해’ 관련 해석



- 최초 기준안 마련 당시, 치료기간이 약 4주 내지 5주 이상이더라도 아무런 후유장애나 추상장애가 남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설정한 인자이므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견(김현석, 이상원), 다종다양한 실제 사안에서 예컨대 구두에 손가락이 밟혀서 5주가 나온 경우와 같이 진단 주수와 달리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중한 상해’의 의미를 좁혀 해석해야 하므로 위 의견에 찬성한다는 의견(김용철) 등이 제시됨
- 치료기간이 약 4주 내지 5주 이상이면 뼈가 골절되거나 장기에 손상을 주는 등 통상적으로 중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본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는 경우 등을 모두 ‘중한 상해’로 취급함으로써 가중영역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두 가지 요소를 선택적으로 충족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견(서봉규)이 제시됨

#### 나. 2010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 서봉규 전문위원이, 배포된 「전문위원단 회의자료」에 따라 발표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도 변경되고 새로운 범죄가 규정되는 등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수정할 필요도 있음
- 구체적인 전문위원 연구계획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II. 제22차 전체 회의

###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0. 1. 25.(월) 19:30 ~ 23: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2. 참석자(10명)

- 김용철, 김한균, 김현석, 서봉규, 윤정근, 이상원, 이주형, 조은경, 최석운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2010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 4. 회의 요지

#### 가.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

##### (1) 주취 상태의 가중사유 반영

##### (가) 위원회 제22차 회의 내용

- 아래와 같이 의견이 모아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였다는 사정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함

- 나아가, 사전에 예견하거나 범행의사로 자의에 의해 음주하여 심

신미약에 이른 경우를 일반가중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함

(나) 전문위원 검토 의견

○ 전문위원단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찬성 ◇

● 위 개선 의견에 찬성(김용철, 서봉규, 이주형, 조은경)

- 최근 음주로 인한 성범죄가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음주한 경우에는 심신미약 여부와 관계 없이 일반가중인자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타당
- 특별인자가 아닌 일반인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형량 구간의 급격한 변동이 없으므로 실무상 큰 문제가 없음
- 심리학적 관점에서 주취 상태로 인하여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음주한 경우에는 비난할 동기가 증가되는 측면이 있음
- 평소 할 수 없는 범행을 술의 힘을 빌어서 저지르거나 자신의 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신 경우에는 계획성의 측면에서 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책임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 영국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알콜이나 마약의 영향 아래서 저질러진 경우’를 가중요소로 규정한 예가 있음

◇ 반대 ◇

● 위 개선 의견에 반대(김한균, 김현석, 윤정근, 이상원)

- 범행시를 기준으로 책임능력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범행 당시에는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견하고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바, 다만 그러한 경우를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더욱 가중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입법례 가운데, 프랑스와 같이 폭행, 강간 등 개별범죄에 있어서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을 예외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 아래에서도 과연 음주 당시의 사정에 기초하여 형량을 가중하는 인자로까지 취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
- 굳이 술의 도움을 빌지 않고 차가운 이성 상태(cold blooded)에서 저지른 범행의 악성이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보다 더 무거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후자를 가중하는 것은 부적절
- 현재 국회에서 주취상태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가중하는 법안이 일부 발의되어 있고 책임주의와의 관계에서 많은 논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형기준으로 주취상태를 가중사유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고 생각되며, 위원회 22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도 상당한 양형실무 개선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 (2) 특별양형인자 조정

### (가) 위원회 제22차 회의 내용

- 다음 특별가중인자를 추가하기로 하는데 의견이 모아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는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와 선택적으로 규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인자에 다음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한다.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양형인자의 정의>

너.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더.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학교 내(교정, 교사 포함), 학교 주변, 등하교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말한다.

- 나아가,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적 범행', '약취·유인·감금의 수반', '극심한 중상해 관련 인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방안, '중한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또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나)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적 범행

- 제시된 방안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인자에 다음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한다.

-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적 범행

<양형인자의 정의>

하.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적 범행

- 피고인이 각기 다른 시기에 13세 미만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 위 양형인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 전문위원단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뉘

#### ◆ 찬성 ◆

##### ● 위 개선 의견에 찬성(서봉규, 이주형)

-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적 범행’은 상습성이라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다른 양형인자가 없으므로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데 찬성
- 현재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하에서는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특별가중영역으로 가는 것이 더욱 중한 형량이 보장되므로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 13세 미만 성범죄 양형기준의 기본영역은 ‘5년~7년’이고, 경합범의 경우 두 번만 가중할 수 있으며 첫번째는 3년6월(상한의 1/2)을 가중하고 두번째는 2년4월(상한의 1/3)을 가중하므로, 그 형량범위는 ‘5년~12년10월’에 불과하나, 13세 미만 피해자의 수가 5명, 10명을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추어 ‘무기’형이 선고될 수 있어야 함
- 만일 특별가중인자로 포섭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도 포함하는 인자 정의가 더욱 바람직

#### ◆ 반대 ◆

##### ● 위 개선 의견에 반대(김용철, 김한균, 김현석, 윤정근, 이상원)

- 원래 상습범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상습범이라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는 아동 성범죄에 위와 같은 가중인자도 반영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도 적용하게 되면 다른 상습 범죄와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형인자 추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별개 의견 ◆

- 오히려 일반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를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조은경)

(다) 약취·유인·감금의 수반

○ 제시된 방안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인자에 다음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한다.

- 약취·유인·감금의 수반

<양형인자의 정의>

거. 약취·유인·감금의 수반

- 피고인이 범행수단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약취·유인하여 상당기간 동안 감금한 경우를 말한다.

○ 전문위원단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찬성 ◆

● 위 개선 의견에 찬성(서봉규, 이주형)

- ‘약취·유인·감금이 수반된 경우’에도 범행의 수법이 결코 좋지 않으므로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여 형량 하한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 미연방의 경우에도 피해자를 유괴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형량을 가중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특별가중인자에 해당
- 실무상 경합범 가중으로 처리되지 않고 성범죄에 흡수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으로 해결된다고 보기 어려움

## ◆ 반대 ◆

### ● 위 개선 의견에 반대(김용철, 김한균, 김현석, 윤정근, 이상원)

- 약취, 유인, 감금의 범행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이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
- 다수범죄 처리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외를 창설하는 경우를 가급적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자칫 해석 여하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약취·유인 등이 전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성범죄에 본질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까지 특별가중인자로 처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라) ‘극히 중한 상해’ 관련 인자

#### ○ 제시된 방안

##### (제1안) 상해 결과에 관한 별도의 특별인자로 설정하는 방안

- ‘극심한 중상해’ 또는 ‘영구적 장애나 생명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중한 상해와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제2안) 치사 범죄유형을 준용하는 방안

- ‘극심한 중상해’는 사망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강간치사의 범죄유형을 준용

##### (제3안) ‘정신적 상해’를 별도의 특별인자로 추가하는 방안

- 극심한 중상해가 발생하는 사례에서는 대부분 그 정신적 충격 또한 심각하므로 정신적 상해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제3-1안) ‘극도로 심각한 피해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인자로 추가하는 방안

- 성범죄와 관련 있는, 수술 등의 방법으로도 복구되지 않는 문신, 추상(영구 흉터) 등이나, 극도의 반영구적 정신적 후유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향후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정상적인 남녀관계, 혼인생활 등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제4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3유형 극심한 중상해”라는 별도의 범죄유형을 설정하는 방안

- 양형기준에서는 상해와 사망의 중간 단계에 이르는 ‘극심한 중상해’에 관한 별도의 유형을 설정

○ 전문위원단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1안을 기본으로 제시된 의견 ◆

- 상해와 관련하여, 상해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에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중한 상해’ 인자와는 별도로 ‘영구적 장애나 생명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서봉규)
- ‘중한 상해’와 ‘영구적 장애 또는 생명의 위험을 초래한 상해’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미국 연방의 경우에도 중한 상해는 2등급 가중하나, 영구 장애 등에 대해서는 4등급 가중을 하는 등 차등을 두고 있으며, D.C.의 경우에도 영구 장애를 야기한 상해의 경우에는 이탈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등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가중인자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이주형)

◆ 3안을 기본으로 제시된 의견 ◆

- 아동 성범죄에 있어서는 정신적 피해가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육체적 상해의 측면이 강조되는 기존의 ‘중한 상해’와 달리 정신적 상해의 측면을 반영하는 양형인자의 추가가 필요(조은경)

◆ 3-1안을 기본으로 제시된 의견 ◆

- 기존에 ‘중한 상해’가 특별가중인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해에 초점을 둔 특별가중인자를 추가하게 되면 양형인자의 중복평가가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의 결과 즉, 아동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사정을 별도의 인자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김현석)

- 정신적 상해의 측면을 양형인자로 반영할 경우 대부분의 성범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정신적 상해 이외의 제한적인 징표를 갖춘 양형인자 발굴이 필요(김용철)
- 기존의 ‘경미한 상해’, ‘중한 상해’는 기본적으로 겹으로 드러나는 병리학적 측면에 주안을 두고 있으므로, 극히 중한 유형의 성범죄를 포섭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가혹한 피해 결과를 야기한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이상원)

#### ◆ 별개 의견 ◆

- 양형인자 설정 당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중한 상해’의 정의를 형법상의 중상해 개념보다 확대하여 4주 이상 정도로 규정한 것인데,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극히 중한 상해’를 별도 양형인자로 추가할 경우 ‘중한 상해’에도 해당되고 ‘극히 중한 상해’에도 해당되는 인자가 발생하여 양형인자의 중복평가가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윤정근)

#### (마) 기존의 ‘중한 상해’ 관련 해석

- 성범죄 양형기준 중 상해 관련 인자

#####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 전문위원단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최초 기준안 마련 당시, 치료기간이 약 4주 내지 5주 이상이라도 아무런 후유장애나 추상장애가 남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고 설정한 인자이므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견(김현석, 윤정근, 이상원), 다종다양한 실제 사안에서 예컨대 구두에 손가락이 밟혀서 5주가 나온 경우와 같이 진단 주수와 달리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중한 상해’의 의미를 좁혀 해석해야 하므로 위 의견에 찬성한다는 의견(김용철) 등이 제시됨
- 치료기간이 약 4주 내지 5주 이상이면 골절되거나 장기에 손상을 주는 등 통상적인 중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본으로 평가하고,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는 경우 등을 모두 ‘중한 상해’로 취급함으로써 가중영역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두 가지 요소를 선택적으로 충족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견(서봉규), 중한 상해의 정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강도상해의 경우 가중영역의 형량범위가 ‘6년 ~ 10년’에 불과하므로 중한 상해의 범위를 넓혀서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주형) 등이 제시됨

## 나. 2010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 (1) 전문위원 연구계획

- 서봉규 전문위원이 ‘전문위원단 회의자료’를, 윤정근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2010년도 연구과제(안)’을, 이주형 전문위원이 ‘2010년 전문위원 연구계획 방안’을 발표
-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구과제를 선정

순번	연구과제	연구시기	분장
1	구체적 양형기준안 연구	2월 ~ 11월	분담
2	제1기 양형기준 적용효과 분석	3월 ~ 6월	분담
3	재범예측성 판단	3월 ~ 5월	1팀
4	가석방 실태 분석	4월 ~ 6월	2팀
5	제1기 양형기준의 점검 및 보완	5월 ~ 11월	분담
6	양형심리절차 개선방안	5월 ~ 8월	2팀
7	마약범죄 등 양형과 치료사법	6월 ~ 9월	2팀
8	형사실체법 정비 방안	7월 ~ 10월	1팀
9	제2기 양형기준안 효과 분석	11월 ~ 12월	1팀

- 구체적 양형기준안 연구 과제는 대상범죄를 아래와 같이 팀별 분장하기로 함(종전 보고 내용)

	1팀	2팀
대상 범죄	사기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식품·보건	절도 마약 약취·유인 공무집행방해

- 제1기 양형기준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효과 분석 과제 등은 대상범죄를 아래와 같이 팀별 분장하기로 함

	1팀	2팀
대상 범죄	살인 뇌물 횡령·배임	성범죄 강도 위증 무고

- 이주형 전문위원이 제시한 기타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과제(양형기준 적용효과 분석, 제1기 양형기준의 점검 및 보완 등)의 연구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적절히 포함시켜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제 도입목적에 관한 연구
- 행위인자와 행위자인자 구별 및 차별적용의 타당성 연구
- 현재 집행유예 기준의 기준으로서의 적정성 연구
- 성범죄 양형기준에 있어 구성요건요소의 특별양형인자화에 관한 연구
- 일반양형인자를 예시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연구
- 최초 양형기준의 수정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방안
- 양형기준 시행 전후에 걸친 양형편차 해소 여부에 관한 연구

- 법원별, 재판부별, 지역별로 유사한 사안에 대한 양형편차의 존부 및 정도
- 최초 양형기준의 시행성과와 문제점에 관하여 법조인과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방안
- ‘가석방 실태 분석’과 관련하여 가석방 업무에 관여하고 그 관련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정국 소속 직원’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조은경)이 제시됨

## (2) 전문위원 연구 일정

- 전문위원단은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양형기준안 연구에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범죄를 구분하여 2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되, 제1차 공청회는 2010. 6.경에, 제2차 공청회는 2010. 11.경에 개최하기로 하는데 대체적인 다수의견이 모아짐
- 공청회 개최시기를 늦추어 제1차 공청회를 2010. 9.경에, 제2차 공청회를 2010. 12. ~ 2011. 1.경에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향후 양형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위원단은 활동일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회의를 개최해나감으로써 업무추진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봉규)도 제시됨
- 또한 제1기 양형기준의 시행경과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여 제2기 양형기준 수립 시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제1기 양형기준의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일정도 함께 결정되어야 하고, 제2기 양형기준 수립 전에 위 수정안에 대

한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주형)이 제시됨

### **Ⅲ.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23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제23차 회의 결과를 참조하여 추후 개최하기로 함